

태국 국경 넘기: 웨이싸이(Huay Xai)에서 치앙쿵(Chiang Khong)으로

통테일 보트(편도 US\$1, 5분 소요, 8am-6pm)를 타고 메콩강을 건너 라오스의 웨이싸이에서 태국의 치앙쿵까지 갈 수 있다. 차량을 운반하는 커다란 카페리(US\$50)도 같은 길을 오간다. 라오스 출입국 사무소는 페리 선착장 옆에 있으며, 도착과 동시에 30일 비자를 발급해 준다. 팍방에서 오는 보트나 루앙남타에서 오는 버스들은 국경이 문을 닫은 직후에 도착하는 일이 잦다. 반대 방향으로 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p170을 참고.

배

메콩 강을 따라 루앙프라방까지 내려가는 슬로보트(1인당 US\$20, 2일 소요)가 여행객들 사이에 대단한 인기다. 그러나 여행이 어떨지는 보트의 상태와 인원수에 달렸다. 보통 70명이 적정 인원이지만, 선장은 100명도 넘게 사람들을 밀어 넣기도 한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단체로 승선 거부할 하고 다른 보트에 승선하는 것이 낫다. 더 좋은 방법은 그물을 찢어 US\$500에 보트를 빌리는 것이다. 넉넉한 공간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보트는 마을 북쪽 끝에 있는 보트선착장에서 출발하며, 팍방(US\$9.50, 6-8시간 소요)에서 하룻밤을 머문다. 티켓은 떠나기 전날 오후에 선착장에서 살 수 있으며, 게스트하우스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표를 사기 전에 타고 갈 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방이 막혀 있어서 밖을 볼 수 없는 배도 있다. 이런 경우 답답하고 실망스런 경험이 될 수 있다.

Asian Oasis (☎ 2525533; www.asian-oasis.com; Ban Vat Sene, Luang Prabang; 5월 9월/1-원 4월 1인당 US\$185/270)에서 운영하는 강철 보트 루앙사이(Luang Say)를 이용하면 좀 더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양방향으로 일주일에 세 번 운항한다. Phoudoi Travel Co (Th Saykhong)에도 일주일에 2회 운항하는 편안한 보트(US\$60)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chiangsaenriverhill.com을 참고하자.

팍방(US\$14, 3시간 소요)과 루앙프라방(US\$28, 6시간 소요)으로 가는 6인승 스피드보트는 마을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선착장에서 출발한다. 스피드보트는 안전한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사망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다. 취재 당시 외국인인 스피드보트 승선이 금지될 거라는 소문도 있었다.

슬로보트도 반나래(Ban Na Lae)를 경유해 루앙남타(한 대당 US\$180-200, 일인당 US\$10) 더 내면 숙식 제공)까지 간다. 그러나 강이 너무 얇아서 전기에는 구간 별로 걸어서 건너야 할 때도 있다. 슬로보트는 지붕이 없으므로 선풍기 켜줘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BAP Guest House에 문의하자.

어떤 배를 타든 물과 음식은 넉넉히 가져가는 것이 좋다. 딱딱한 나무 의자는 금세 불편해져서 침낭이나 수건을 미리 꺼내놓자.

라오스 남부

북부에 비해 오랫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라오스 남부가 점차 여행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극적인 자연과 원시 상태의 숲, 메콩 강변의 작은 마을들, 시간이 멈춘 듯한 강가의 섬들과 낡은 마을 주민들이 이루는 매력적인 조화 때문이다. 광활한 라오스 남부는 아직 관광지화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에 생떼우나 오토바이를 타고 쉽게 길을 벗어나 볼 수 있다. 또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관광 프로젝트가 생겨나면서 떠난 마을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으로도 여행이 가능해졌다. 라오스식 생활 체감도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비엔티안에서 곧장 뿔뿔으로 향한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남부로 향해보자. 7km 길이의 동굴 탐공로, 푸힌분 국가보존 구역에서의 트레킹, 불라네 고원지대 탐험, 쉼썩썩 등은 4000개 섬(씨판돈)의 해마다 열리는 축제 전에 들를 만한 곳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라오스 남부



불리캄사이 & 캄무안 지방

Bolikhamxai & Khammuan Province

불리캄사이와 캄무안은 라오스 중앙의 좁은 '허리' 부분, 메콩 강 유역에서 장엄한 고원 지대를 치안안 산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 사통팔달한 한가로운 타켄(p373)이 근거지다.

이 지역은 인구가 희박하고, 광활한 다섯 군데 숲지대는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일대는 수확할 땀을 건설하려는 사람들과 아시아에서 가장 원시적인 자연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의 간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 댐 건설업자

들이 이기고 있는 듯하다.

박싼 Paksan

불리캄사이 지방의 주도(州都)인 박싼은 남산(산 강)과 메콩 강이 합쳐지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불거리는 없지만 인적이 드문 태국 국경이 있다(p373 참고). 이곳에서 머무른다면 BK Guesthouse (☎ 054-212638, 020-561 2348; r US\$5-8; ☺)가 저렴한 숙소 중에서는 가장 좋다. 다리를 건너 동쪽으로 가다가 첫 갈림길에서 오른쪽(남쪽)으로 불어 수백 미터만 더 가면 오른쪽에 있다. 새로

생긴 **Paksan Hotel**(☎ 054-791333; 팩스 791222; 루트 13; r US\$10-15; 🍽️)은 좀 더 고급스럽다. 비엔티안 올 오가는 버스들은 루트 13 도로상의 탈랏사오(아침 시장) 앞에 선다.

루트 8을 따라 락사오 가기

루트 8은 흔히 비디오 게임에서 막 튀어 나온 길처럼 묘사되곤 한다. 장관을 연출하는 숲과 산, 석회암 카르스트 풍경들 사이로 구불구불한 도로가 매끄럽게 지나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주요 기착지는 **반쿤캅(Ban Khoun Kham; '반나헌'**이라고도 부름) 마을이다. 루트 13에서 동쪽으로 41km 거리의 울창한 헌본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주로 탐콩로(아래) 동굴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출발점으로 삼는 마을이다. 마을에 있는 동안, 쌍둥이 폭포 **탓 남사남(Tat Namsanam)**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마을에서 북쪽으로 3km 가면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트레킹은 **탓 남사남** 입구의 남쪽에 있는 **여행안내센터**(루트 8)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숙소는 **Mi Thuna Restaurant & Guesthouse**(☎ 020-224 0182; 루트 8; r US\$5-9; 🍽️ 🍷)로, 방은 매우 편안하고, 사장인 랄포와 문은 각각 훌륭한 지역정보원이자 뛰어난 요리사다. 루트 8을 따라 시장 남쪽으로 약 800m에, 웬 주유소를 지나면 있다.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은 시장 맞은편에 있는 **Seng Chen Guesthouse**(☎ 051-214399; s/d US\$4/6)다.

루트 8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반쿤캅 마을에 선다. 비엔티안(US\$4) 행 버스는 주로 오전 7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정차한다. 타렉(US\$4.3 시간 소요, 143km)으로 가는 버스는 아침에 두어 편이 있고, 락사오로 가려면 지나가는 아무 버스나 썬페우를 잡아타면 된다.

탐콩로 Tham Kong Lo

거대한 석회암 산의 끝에서 강이 갑자기 사라져 철쭉같이 어두운 구불구불한 동굴을 따라 7km

를 흘러간다. 이제 라오스의 진정한 자연의 것이 탐콩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이다. 탐콩로는 **푸힌분 국가보호구역(Phu Hin Boun NPA)** 내에 있다. 푸힌분은 청록색 계곡물과 온순 원시림, 그리고 캄무안 중앙을 가로지르는 카르스트 지형이 있는 면적 1580km²의 환경 보지대다. 탐콩로 동굴은 너비가 100m나 되는 지점도 있고, 높이도 그만큼 높다. 모터를 단 카프로 약 한 시간 가량이 동굴을 지날 수 있다. 천둥을 꼭 지참하도록 하고, 물이 얇은 곳에서는 위에서 내려 걸어가야 할 때도 있으므로 고무신을 신도록 하자.

반쿤캅에서 탐콩로까지 당일 여행을 할 수 있지만, 동굴 근처에서 하룻밤 지는 것이 더 재미있다. 탐콩로에서 약 12km 거리에 있는 헌영 마을 끝에 **Sala Hin Boun**(☎ 020-561 4016; www.salalao.com; r 아침식사 포함 US\$18-23)이 있다. 산과 강을 볼 수 있는 라오스식의 편안한 방이 있으며, 미리 주문하면 음식도 마련해준다. 반쿤로 마을에서 약 6km 더 가까운 반티우 마을에도 똑같은 업체가 운영하는 **Sala Kong Lor**(www.salalao.com; r US\$4-12)가 있다.

반쿤로 마을에서의 **홈스테이**(식식 & 조식 포함 인당 US\$5)는 더욱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 마을은 동굴 입구에서 하루 쪽으로 약 1km 거리에 있다. 홈스테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310을 참고하자.

도착 & 출발

2008년 중순쯤 반쿤캅(반나헌)에서 반콩로까지는 50km의 도로가 완공될 예정이다. 도로가 완공되면 오토바이나 썬페우를 타고 한 시간이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우기에 배로 갈 수밖에 없다. 자전거나 썬페우를 타고 반나퐁(Ban Na Phuak; 1인당 US\$1, 35분, 14km)까지 가서 거기서 보트를 타고 아름다운 남헌분(분강)을 따라 반콩로까지 약 3시간 반이 걸린다. 배 한 대 당 최대 4명이 탈 수 있고 왕복 US\$

정가)이다.

긴기인 10월 말부터 6월까지의 오토바이를 타고 육로로 갈 수 있다(도로가 포장된 지점까지만). 그런 다음 마른 논을 지나가야 하는데, 울퉁불퉁한 바닥의 충격이 거의 드릴 수준이다. 이 지역에는 길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일찍 출발하도록 하자.

반콩로에서는 뱃사공들이 배 한 대당 동굴을 돌아 나오는 요금으로 왕복 US\$10을 받는 대략 2시간 30분 소요, 최대 네 명 승선) 입장료 US\$20은 따로 내야 한다. 최근 정보는 Mi Thuna Guesthouse에 물어보자.

락사오 Lak Sao

☎ 054 / 인구 28,000

락사오(직역하면 킬로미터 20) 주변의 숲과 산, 카르스트 지형은 무척 아름답지만, 마을 자체는 다소 실망스럽다. 베트남(p318 참고)을 오가는 길에 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면 은행으로는 **Lao Development Bank**(루트 8B)가 있지만 인터넷 카드는 없다. **Souriya Hotel**(☎ 341111; 루트 88; r US\$5-15)은 깨끗한 방과 불어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매니저, 그리고 호텔 옆에 펜션은 라오스 레스토랑이 있어 좋다.

시장 근처에 오전 5시, 6시, 8시에 비엔티안(US\$6, 6-8시간 소요, 334km)으로 가는 버스가

태국 국경 넘기: 팍산(Paksan)에서 봉칸(Beung Kan)으로

팍산에서 메콩강을 건너 태국의 봉칸으로 가는 이 국경(개방시간 8am-정오 & 1.30pm-4.30pm)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라오스에서는 도착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보트(60B, 20분 소요)는 다섯 명이 치면 출발하며, 배를 대질할 수도 있다(300B). 국경으로 가려면 팍산에서 루트 13을 따라 서쪽으로 약 1.5km를 간 다음 남쪽으로 돌아서 Port 표 지판을 찾는다. 태국 역시 이 국경에서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반대 방향으로 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p196 참고.

있다. 이 버스는 중간에 비엠허(탕땡, US\$3, 1시간 30분-2시간 30분 소요, 100km)에도 정차한다. 비엠허으로 가는 다른 차들은 하루 종일 있다.

타렉 Tha Khaek

☎ 051 / 인구 70,000

낡은 프랑스-중국식 건축물, 그늘을 드리우는 큰 나무들이 있고, 누구도 특별히 서두르는 사람이 없는 듯한 조용한 타렉은 캄무안 지방 관광의 출발점이다. 메콩 강변에는 푸난과 첸라 왕국 시대부터 마을이 있어왔고, 당시 이곳은 '스리 고타 푸라'(라오어로 시코타봉)로 불렸다. 현재의 도시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인 1911년에서 1912년 사이에 건설됐다. 타렉은 '손님들이 도착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 곳이 외국인 무역상들이 오가는 선착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구시가지의 중심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는 Th Kuvoravong 도로의 서쪽 끝에 있는 소박한 분수 광장(Fountain Sq)이다. 분수대에서 가까운 강변의 맥주집들은 해질 무렵 한 잔 하기에 좋다.

기본 여행정보

BCEL(☎ 212686; Th Vientiane) 주요국 화폐 환전과 여행사 수표 교환이 가능하며, 비자카드도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Lao Development Bank**(☎ 212089; Th Kuvoravong) 환전만 가능.

우체국(Th Kuvoravong) 국제전화도 걸 수 있다.

Tha Khaek Hospital(Th Chou Anou와 Th Champasak 교차점) 가벼운 질환, 말라리아나 Dengue 열 같은 흔한 질병은 치료 가능하다.

Tha Khek Travel Lodge(☎ 030-530 0145; travell@taotel.com; 시간당 US\$3) 취재 당시 타렉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이 가능했던 곳.

여행안내소(☎ 212512; Th Vientiane; 🕒 8am-4pm)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트레킹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영어 가이드를 만나보자. 그룹의 규모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썬

베트남 국경 넘기: 남파오(Nam Phao)에서 까우트레오(Cau Treo)로

케우느아 도로를 따라 남파오(라오스)에서 까우트레오(베트남)로 넘어가는 국경은 락사오에서 32km 떨어져 있으며 7am부터 6pm까지 개방된다. 생떼우(US\$1.50, 45분 소요)는 락사오 시장에서 매 시각 출발한다. 락사오에서 빈까지 가는 직행버스(100,000d 또는 그에 상응하는 액수, 3-4시간 소요)가 정오쯤부터 2pm까지 몇 차례 출발한다. 단 국경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할 수도 있다. 베트남 비자는 미리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 라오스는 국경에서 30일 비자를 발급해 준다.

국경에서 락사오까지는 점보나 사람이 차면 출발하는 생떼우를 타거나, US\$10정도에 생떼우를 대절하면 된다. 이 국경을 넘을 때는 바가지를 쓰기 쉽다. 특히 베트남 쪽에서는 더욱 그렇다. p116의 상자글을 참고하자. 반대방향으로 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p434 참고.

키엣 씨(☎020-571 1797)에게 전화할 걸어서 예약한 다른 여행자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여행객 전담 경찰(☎250610: Fountain Sq)

불거리

불거리는 많지 않으며 명소는 주로 마을 밖에 있다. 락사오 시장(Talat Lak Sawng: Km 2 Market: Th. Ku-voravong)은 활기찬 분위기에서 점심을 먹기에 좋고, 그리 대단치는 않지만 온세공장의 작업 과정을 볼 수도 있다.

잠잘 곳

타렉에는 숙소가 많지 않다. 다음 세 곳은 믿을 만하고 괜찮은 레스토랑도 운영한다.

Phoukhanna Guesthouse(☎212092: Th Vientiane: r US\$3.50-8: ☎) 영어를 할 줄 아는 매니저가 있다. 뒤편에 있는 방들은 가격대비 최고.

후천 Tha Khek Travel Lodge(☎030-530 0145: travell@iaotel.com: dm US\$2.50, r US\$5-11: ☎) 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편안하고 음식맛도 좋아서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방은 약간 비싼 듯 하지만 깨끗하다. 방명록에 인기있는 오토바이 지역 순례에 대한 여행객들의 소감이 적혀 있다. 오토바이도 대여해 준다(하루에 US\$10-15).

Mekong Khammouane Hotel(☎250777: Th Setthathirath: r US\$11: ☎)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4층짜리 푸른 색 건물의 호텔로 강변에서도 금방 눈에

된다. 좀 어둡게 느껴지지만 깨끗하고 시설이 갖춰졌다. 가격대비 괜찮다. 전형적인 베트남 호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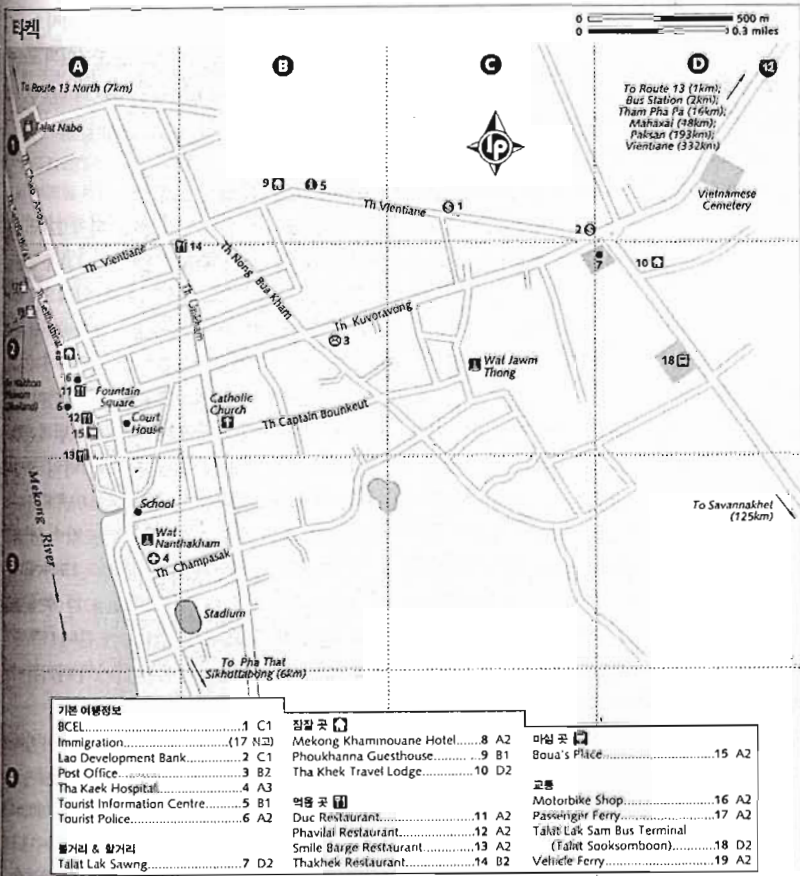
먹을 곳 & 마실 곳

Thakhek Restaurant(Th Vientiane: 식사 US\$1.50-4: 7.30am-10.30pm) 실내와 야외 테이بل이 있으며 양한 라오스와 태국 음식이 있다. 특히 생선 요리가 맛있다.

Smile Barge Restaurant(☎212150: 식사 US\$4.50: ☎) 정오-1am) 분수광장 남쪽으로 메콩강변을 따라 떠 있는 몇 군데 선상 레스토랑 중 한 곳이다. 가라오케와 맛있는 라오스 음식과 해산물 요리가 있어 인기 있다. 맞은편에 이 레스토랑의 주차장도 있다.

Boua's Place(Th Setthathirath: ☎3pm-10pm) 분수광장 바로 남쪽의 강변에 있는 이 훌륭한 천막엔 미용사를 하다가 바를 차린 주인이 강이 내려 보이는 식탁에서 방랑객들을 대접한다. 근처 레스토랑에서 간식거리를 주문할 수 있다.

아침이면 분수광장이나 그 근처에서 카옌(바게트) 행상들을 볼 수 있다. 분수대와 강변에서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Duc Restaurant**(식사 US\$1.50: ☎6am-10pm)에는 맛있는 하얏(쌀국수를 국물 없이 야채와 양념에 비벼 먹는 것)이 있고, **Phavilai Restaurant**(Fountain Sq: ☎US\$1-2: ☎6am-9pm)은 일반적인 라오스-중국 밥과 국수 종류를 판다.



도착 & 출발

타렉의 버스터미널(루트 13)은 마을 중심부에서 약 35km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꽤 큰 시장과 게스트하우스들이 있다. **비엔티안으로 가는 버스**(US\$4.6시간 소요, 332km)는 오전 4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출발하며, 중간에 **양캄(당배: US\$2.90분 소요, 102km)**과 **백산(US\$3.3-4시간 소요, 193km)**에 정차한다.

남쪽으로는 **싸완나캄(US\$2, 2-3시간 소요, 125km)**과 **백세(US\$4.50, 6-7시간 소요, 368km)**로 가는 버스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 사

이에 자주 있는 편이다. 베트남으로는 오전 8시에 **훼(US\$8)**, 오후 8시에 **다낭(US\$8)**과 **하노이(US\$16, 17시간 소요)**로 가는 버스가 있다.

생떼우는 루트 12를 따라 동쪽으로 가며, 락삼 시장(Talat Lak Sam) 버스터미널(썩썩문 버스터미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약한 시간 간격으로 출발한다. 행선지는 마하사이(Mahaxai: US\$1.50, 1시간30분-2시간30분 소요, 50km), 니옴말랏(Nyommalat: US\$2, 2-3시간 소요, 63km), 나카이(US\$2.50, 2시간30분-3시간30분 소요, 80km), 그리고 베트남 국경

의 나파오(US\$3.50, 5~7시간 소요, 142km)다.

타렉 내 교통편

버스터미널까지 정보를 빌리는 데 약 US\$1.50가 든다. Tha Khek Travel Lodge(p374)에서 중국 산 110cc 오토바이를 하루에 US\$10 또는 US\$15에 빌려주며, 분수광장 바로 북쪽에 있는 강변의 작은 **motorbike shop**(Th Seththathirath)은 비슷한 오토바이들을 비슷한 가격에 빌려준다. 여행안내소에서 자전거 대여를 알선해 준다.

타렉 근교

마을에서 남쪽으로 6km 거리에 있는 불탑 파 텃 시코타봉(Pha That Sikhottabong: Pha That Muang Ka: 입장료 US\$0.30: ☎ 8am~6pm)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적이다. 약 천 년 전에 있었던 시코타봉 왕국의 유물이라고 한다. 그 밖에 불거리로는 루트 12를 따라 있는 동굴들과 **푸힌본 국가보호구역** 근처의 환상적인 석회암 지대를 들 수 있다. 국가보호구역 트레킹은 1, 2, 3일 코스가 있으며, 타렉에 있는 **여행정보센터**(☎ 212512: Th Vientiane)의 가이드를 따라 투어를 떠난다. 잠을 자는 코스일 경우 마을 홈스테이를 한다. 여행정보센터에 투어에 관한 안내책자와 사진들이 있으니 참고하자.

여행객들은 또한 오토바이를 빌려서 지역순례

태국 국경 넘기: 타렉(Tha Khaek)에서 나콘파놈(Nakhon Phanom)으로

타렉에서 메콩 강을 건너 태국의 나콘파놈으로 가는 배는 보트 선착장에서 대략 한 시간 간격으로 출발한다. 출입국사무소(☎ 8am~6pm)는 분수광장에서 북쪽으로 약 400m 거리에 있다. 보트 요금은 US\$1.50 또는 60B다. 주말에는 배가 더 뜰하게 다지고, 라오스에서는 US\$1, 태국 쪽에서는 10B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타렉의 라오스 출입국사무소는 30일짜리 관광비자를 발급해 주며, 환전 서비스(☎ 8.30am~3pm)도 겸한다. 반대 방향으로 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p193을 참고하자.

를 할 수 있는데, 이 지방의 나카이, 락사오쿤(나힌), 그리고 탐콩로를 들르는 3~4일의 코스가 자세한 사항은 Tha Khek Travel Lodge(p374)의 방명록을 살펴보자.

루트 12를 따라 동쪽으로

타렉 동쪽으로 루트 12 도로를 따라 22km까지는 몇 개의 동굴과 버려진 철도, 그리고 수영할 수 있는 장소가 두어 군데 있어 하루 일정으로 돌아보기에 좋다. 뚝뚝,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빌려갈 수 있다.

첫 번째 동굴 탐쌍(Tham Xang: 코끼리 동굴)은 인근 마을인 반담의 이름을 따서 탐쌍반담이라고도 부른다. 이 동굴은 '코끼리 머리' 모양의 석순으로 유명하다. 이 석순은 1950년대에 약이라고 여겨지던 다른 석순이 산산조각이 난 채 기적으로 생겨났다고 한다. 루트 13과 만나는 교차로에서 동쪽으로 약 2.5km를 간 후에 철도길에서 오른쪽 길로 가면 된다. 이 길이 너무 험할 때는, 루트 12를 따라 계속 가다가 다리를 건너 다음 오른쪽(남쪽) 흙길로 가도 된다.

동굴을 보고 다시 루트 12로 돌아와서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탐파파(Tham Pha Pa: 불성동굴: 입장료 US\$0.20: ☎ 8am~정오 & 1~4pm)로 가보자. 200m 높이의 지상 15m 높이에 난 동굴이다. 2004년 4월 박쥐를 사냥하던 한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 229개의 청동 불상들은 약 600년 동안이나 이곳에 보존되어 왔다. 탐파파로 가려면 루트 13과 교차로를 지나 루트 12를 따라 약 4km를 더 가면 북쪽에 있는 붉은 흙길로 접어든다. 흙길에서 약 500m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옛 철도를 따라간다. 갈림길이 나오면 왼쪽 길로 접어들어 여행안내소에서 당일 트레킹을 운영한다.

다시 루트 12로 돌아오면 몇 군데 다른 동굴들이 있다. 후아이씨앙리압과 반송콘 마을(루트 13 교차로에서 약 10.5km) 위를 지나는데, 루트 13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400m를 가면 석회암 동굴 탐 씨앙리압(Tham

베트남 국경 넘기: 나파오(Na Phao)에서 차로(Chalo)로

이 국경(개방시간 7am~5pm)은 많이 이용되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양쪽의 교통편도 많지 않다. 타렉에서는 생때우(US\$3.50, 5~7시간 소요, 142km)가 하루에 최소 한 대 출발한다. 베트남 쪽에서 교통편을 이용하려면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 국경에서는 라오스와 베트남 모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베트남 쪽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는 동호이(Dong Hoi)다. 직행 버스가 타렉과 동호이 사이를 오간다(US\$13, 10~14시간 소요). 이 버스는 타렉에서 수요일과 일요일 오전 7시에 출발하며, 동호이에서는 월, 금요일 오전 6시에 출발한다. 반대 방향으로 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p434 참고.

Xiang Liap)이 나온다. 장엄한 300m 높이의 절벽 아래에 동굴 입구가 있다. 다시 계속해서 루트 12를 따라가면 높은 절벽 사이로 난 좁은 통로(루트 13 교차로에서 약 11.5km)가 나온다. 교차로 뒤의 북쪽 길로 접어들면 신성한 동굴 탐 사인(Tham Sa Pha In: 탐파나인)이 있다. 이곳에서 수영은 금지다. 마지막 동굴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탐낭엔(Tham Nang Aen: 입장료 US\$0.50)이다. 타렉에서 약 18km 거리에 있다. 오른쪽(남쪽)을 가리고 있는 라오어로 된 두 개의 커다란 안내판을 찾아보자.

싸완나켓 지방 Savannakhet Province

싸완나켓은 라오스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지방이다. 또한 엄청난 양의 쌀을 생산하는 곳으로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중요한 무역 창구다. 2006년 12월에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가 개통되면서 교통량도 늘어났으며, 태국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두툼한 돈다발은 채길 준비를 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메콩 강 유역의 생활을 체험하고, 동나와 동부비엠티 보호구역으로 트레킹을 떠나기 위해 찾아온다.

싸완나켓 (무앙 칸타불리) Savannakhet (Muang Khamthabuli)

☎ 041/인구 124,000

싸완나켓의 곧 쓰러질 것 같은 식민지 시대 건물들은 프랑스가 비엔티안 남쪽의 가장 큰 무역 및 행정의 중심지로서 이 도시를 얼마나 중시했는

지를 보여준다. 이곳의 분위기는 여전히 한가롭다. 프랑스 시대 건물들은 낡은 외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을 풍기며 큰 나무들은 그늘을 드리운다. **싸완나켓(공식적인 지명은 무앙 칸타불리지만 주로 줄여서 '싸완'이라고 부른다)**은 외곽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바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크고 활기 넘치는 **싸완싸이 시장(Talat Savan Xai: Th Sisavangvong: ☎ 7am~5pm)**은 시 중심에서 북쪽,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으며 이 일대는 상업 활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기본 여행정보

BCEL Bank(☎ 212226: Th Ratsavongseuk: ☎ 8.30am~4pm) 환전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Lao Development Bank(☎ 212272: Th Udomsin: ☎ 8.30~11.30am & 1.30~3.30pm) BCEL과 같은 서비스.

경찰(☎ 212069: Th Ratsaphanith)

우체국(☎ 212205: Th Khamthabuli)

지역 병원(☎ 212051: Th Khamthabuli)

지역 여행안내소(☎ 214203: Th Ratsaphanith: ☎ 8am~11.30am & 1.30pm~4.30pm) 라오스에서 가장 정리가 잘된 여행안내소 중 한 곳.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동나와 동부비엠티 국가보호구역으로의 트레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풍부한 정보가 있다.

SPS Furniture Shop(Th Khamthabuli: 시간당 US\$0.60: ☎ 10am~10pm) 인터넷이 가능한 몇 군데 중 최고.

불거리 & 활거리

마을 중심가의 조용한 거리를 그저 돌아다니는

Xokxay(☎ 213122: 식사 US\$1-2) Hay Thien에서 몇 점 건너 있으며, 비슷한 메뉴를 제공한다.

Lao-Paris Restaurant(☎ 212792: Th Si Muang: 식사 US\$1.50-4: ☎ 7am-10pm) 페리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오래된 중국 상점에 있다. 맛있는 라오스, 베트남, 프랑스 음식이 있어 여행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 서비스는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양이 푸짐하고 가격도 적당하다.

Savan Restaurant(☎ 214488: Th Mak Harena: 식사 US\$2부터: ☎ 6-10pm) 낭만적인 야외 테이블에다가 별나게도 칸막이를 해 놓았다. 이곳은 라오스식 한국 불고기 요리인 신다트(siin daat) 전문점이다. 영어 메뉴는 없지만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주문할 수 있다.

Moonlight Ranch(☎ 030-531 5718: Th Ratsavongseuk: 식사 US\$2-8: ☎ 10am-11pm) 엉뚱한 라오스인, 덴마크인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익숙한 음식을 찾는 여행객과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햄버거가 먹을 만하다.

왓 사인야프 맞은편 강변에 있는 **스백과 음료 행사**(☎ 오후 & 저녁)은 배낭을 멘 방랑객들에게 좋은 곳이다. 그 중에서도 친절한 긴 머리의 여인이 가족을 찾아보자. 눈에 띄는 술집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귀가 멍멍해질 정도의 가라오케가 있는 **Dragon**(Th Ratsavongseuk: ☎ 7-11pm)과 간간히 라이브 공연을 여는 **Rose Bar**(Th Ratsavongseuk: ☎ 6-11pm)가 있다.

도착 & 출발

싸완나켓의 **버스터미널**(☎ 212143)은 현지에서는 보통 키우룻이라 불리며, 도시의 북쪽 끝에 있는 싸완싸이 시장 근처에 위치한다. 버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한 시간 간격으로 싸완나켓을 출발해 **비엔티안**(US\$5.50, 8-11시간 소요, 457km)으로 가며, **중간에 타켓**(US\$2.50, 2시간 30분-4시간 소요, 125km)에 정차한다. **비엔티안으로 가는 VIP 버스**(US\$7, 6-7시간 소요)는 오후 9시 30분에 출발한다.

남쪽으로 가는 버스는 많이 있다. 비엔티안에서 **팍세**(US\$3, 5-6시간 소요, 230km)로 가는 버스들이 도중에 이곳 터미널에 정차한다. 라오 바오(US\$3, 5-7시간 소요) 행 버스들은 오전 8시 30분, 9시 30분, 정오에 출발하며, **세폰**(US\$4-6시간 소요)에 정차한다. **썬페우**는 이보다 자주 출발한다.

싸완나켓 내 교통편

버스터미널로 가는 뚝뚝은 약 US\$1, 합승할 경우는 한 사람 당 US\$0.50다. 헤가 진 뒤에는 요금이 두 배로 된다.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걸어서 다닐 수 있다. 몇몇 게스트하우스와 Lao-Paris Restaurant에서 자전거(하루 US\$1-2)와 오토바이(하루 US\$7-10)를 빌려주는 데, 한 번에 하루만 빌려준다.

루트 9를 따라 동쪽으로

베트남을 향해 동쪽으로 여행할 생각이라면 중간에 들를 만한 곳이 몇 군데 있다.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싸완나켓에서 불과 15km 떨어진 **동나타드 지역보호구역**(Dong Natad Provincial Protected Area)이다. 지역 여행안내소(p377)에서 당일 트레킹과 1박2일 트레킹을 운영한다. 현지 가이드는 숲의 수많은 용도를 설명해 준다. 1박을 할 경우 **호스테이**를 한다. 외딴 **동푸비엡 국가보호구역**(Dong Phu Vieng NPA)으로 가는 3일 트레킹은 보다 진기한 경험이다. 카탕 마을에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이 애니미즘 사회에서 수많은 금기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다. 트레킹 요금은 비싼 편인데,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가격은 떨어진다. 언제 몇 명이 출발하는지 여행안내소에 미리 문의하자.

동쪽으로 더 가면 **세폰**(Sepon)이 있다.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때 파괴된 원래의 도시를 대신해 만들어진 도시다.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만 가면 **세폰카오**(Sepon Kao; 구 세폰)에 뒤편에 있는 **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세폰에서 동쪽

베트남 국경 넘기: 단사반(Dansavanh)에서 라오바오(Lao Bao)로

단사반(라오스)과 라오바오(베트남) 사이의 국경(개방시간 7am-11am & 1pm-6pm)은 여행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혼잡한 곳이다. 국경까지는 싸완나켓에서 버스(US\$3, 5-7시간 소요)가 6.30am, 9.30am, 정오에 출발하며, **세폰**(US\$1.40, 1시간 소요, 45km)에서도 정기적으로 버스가 다닌다. 양국의 입국심사대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며, 베트남 비자를 미리 가지고 있다면 절차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오스는 국경에서 30일 비자를 발급해 준다. 라오스로 들어올 때는 세폰행 썬페우가 자주 있다. 국경 양편에 숙소들이 있다. 또는 버스가 매일 10pm에 싸완나켓에서 동하(US\$12, 약 8시간 소요, 329km), **웨이**(US\$11, 약 12시간 소요, 409km), 또는 다낭(US\$14, 약 14시간 소요, 508km)으로 출발하므로 야간에 이동할 수도 있다. 국경에서는 반드시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반대 방향으로 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p458를 참고.

로약 20km 거리에 **반동**(Ban Dong)이 있다. 지금은 조용한 마을이지만 한때는 호치민 트레일 Ho Chi Minh Trail; 라오스를 거치는 북베트남 보급로)의 중요한 기착지였다. 전쟁의 유물인 **유엔군 미군 탱크** 몇 대가 남아있다. 아이들이 길에 놀아줄 것이다.

버스와 썬페우가 루트 9 도로를 따라 싸완나켓과 단사반 사이를 오간다. 아침 시간에 타는 게 안전하다.

찰빠삭 지방 Champasak Province

북부 Pakse

☎ 031 / 인구 66,000

1905년 프랑스에 의해 행정 기지로 건설된 **팍세**는 메콩 강과 세돈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며 찰빠삭 지방의 주도(州都)이다. 남쪽의 **차판돈**과 **볼라넨** 고원, 그리고 동쪽의 외딴 지방이나 서쪽의 태국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남쪽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팍세**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팍세 중심지는 싸완나켓과 타켓에서도 느껴지는 저지대의 나른한 분위기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건물도 많지 않고 매력도 덜한 편이다. **팍세가** 좀 파분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느긋하고 편안한 분위기는 어떤 이들에겐 장점이 되기도 한다. 거대한 **탈랏 다오흥**(Talat Dao Heung; 새 시장)과 돈코, 왓푸 찰빠삭(p386), **탈판 폭포**(p392)로의 여행이 최고의 볼거리다.

팍세 한눈에 파악하기

팍세의 중심지는 남쪽으로는 메콩 강, 북쪽과 서쪽으로는 세돈 강으로 경계를 이룬다. 루트 13 도로가 도시의 북쪽 끝을 가로질러 간다. 루트 13 도로변과 그 아래 메콩 강 쪽으로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와 상점, 레스토랑이 모여 있다. 세돈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북부 버스터미널이 있다. 남부 버스터미널과 시장은 반대쪽 방향으로 8km 거리에 있다.

기본 여행정보

응급상황

병원(☎ 212018: Th 10와 Th 46 교차점)

경찰(☎ 212145: Th 10)

인터넷

루트 13 도로변과 그 근처에 초고속 ADSL로 연결되는 인터넷 카페가 몇 군데 있다.

Next Step Internet(루트 13: 시간당 US\$0.60: ☎ 8am-11pm) 이곳에서 장당 US\$1.50에 데이터를 CD와 DVD로 옮길 수 있다.

SD Internet(루트 13: 시간당 US\$0.60: ☎ 7am-8pm) 속도가 빠르다.

은행

BCEL(☎ 212770: Th 11: ☎ 월-금 8.30am-3.30pm & 토 8.30-10am) 왓루앙 남쪽에 있으며 현금과 여행지수표를 가장 좋은 환율에 바꿔준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현금서

만별이다. 타렉, 싸완나켓, 팍쎄, 루앙남타, 사인 야블리, 풍살리, 그리고 썸느이에 있는 안내소들은 훌륭하다. 잘 훈련받은 직원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안내 책자를 구비하고 있다. Green Discovery나 Lane Xang Travel 같은 여행사나 투어 회사들도 둘러볼 만하다.

라오스 관광청은 꽤 많은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라오스 국립관광청 www.tourismlaos.gov.la

라오스 에코투어리즘 www.ecotourismlaos.com

라오스 중부 트레킹 www.trekkingcentralaols.com

대사관 & 영사관

라오스 대사관 & 영사관

이웃 국가에 있는 라오스 대사관은 이 책의 해당 국가편을 참고할 것.

주한 라오스 대사관 (☎ 02-796 1713;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9)

라오스 주재 대사관 & 영사관

대한민국 (☎ 856-21 352 031/3; 팩스 856-21 352 035; 이

메일 laos@mofat.go.kr; Lao-Thai Friendship Road, Ban Wat-nak Sisettanak District, P.O.Box 7567 Vientiane, Lao PDR)

캄보디아 (지도 p320-1; ☎ 021-314952; 팩스 021-314951; Km 3, Th Tha Deua, Ban That Khao) 캄보디아 비자 발급 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전날은 220V다. 전기 콘센트는 두 개의 원형 모양. 납작한 단자 두 개가 있다.

(VientianeTimes)(www.vientianetimes.org.la)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행되며, 정당의 강령을 영어로 충실히 전달하는 신문이다. 불어 신문으로는 주간지 (Le Renovateur)가 있다.

라오스 국립방송은 두 개 채널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재미있는 태국 TV나 가라오케 비디오를 본다. 유일한 라디오 방송인 라오스 국립라디오(Lao National Radio: LNR)는 김열을 거친 영어 뉴스를 매일 두 번 방송한다.

라오스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용은 US\$20이다.

중국(지도 p320-1; ☎ 021-315105; 팩스 021-315104; Wat Nak Nyai, Ban Wat Nak) 비자 발급에 휴일을 제외하고 4일이 걸린다.

미얀마(버마: pp268-9; ☎ 021-314910; Th Sok Pa Luang) 관광비자는 3일 내에 발급해 주며 비용은 US\$20.

태국 비엔티안 대사관(지도 p320-1; ☎ 021-900238; www.thaiembassy.org/vientiane; Th Phonkheng; ☎ 월금 8am-정오 & 1-3.30pm): 비엔티안 영사관(지도 p320-1; Th Luang; ☎ 8am-정오 & 1-4.30pm): 싸완나켓 영사관(지도 p378; ☎ 041-212373; Th Kuvoravong)

베트남 비엔티안 대사관(지도 p320-1; ☎ 021-413406; Th Luang): 싸완나켓 영사관(지도 p378; ☎ 041-212373; Th Sisavangvong) 비엔티안에 있는 대사관은 휴일을 제외하고 3일 만에 비자를 발급해 주며 비용은 US\$50이다. 주말에 나오는 비자는 US\$55다. 싸완나켓에 있는 영사관은 달랏과 관광 비자를 US\$45에 발급해 준다. 사진 한 장 필요하고 3일이 걸린다.

비자

라오스는 공항과 국경에서 도착과 함께 30일 관광비자를 발급한다.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방비엠퉁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육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p111의 표를 참고할 것. 도착과 함께 발급받는 비자는 국적에 따라 US\$30에서 US\$42에 해당하는 미국 달러 또는 태국 바트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또한 여권사진 2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정과 가격은 자주 바뀐다. 그러면 외딴 국경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인터넷이나 현지인들의 입소문, 또는 가까운 라오스 대사관(영사관)이든가 너무 느린 웹사이트는 말고)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p393의 '행안네스'를 참고하자. 이중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국경을 이용할 생각이라면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의 영사관에 여행사를 찾아가자. 이곳 여행사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거나 알선해 준다.

퍼연장

퍼연장은 비엔티안의 공안청(Ministry of Public Security) 건물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지도 p320; ☎ 021-212250; Th Hatsady; ☎ 월-금 8am-10pm)에서 하루에 US\$2를 받고, 최고 30일까지 연장해 준다. 비엔티안 밖에서는 여행사와 게스트하우스에서 보통 하루 US\$3에 비자 연장을 대행해 준다. 여권을 비엔티안에 보내야 하므로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단일 비자 기한을 넘길 경우 라오스를 떠날 때 하루에 US\$10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화폐

몇 년 전처럼 사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라오스의 환율은 여전히 비교적 변동이 심하다. 따라서 이 장의 가격은 달러당 K10,000의 환율로 계산해 미국 달러로 제시되었다. 라오스에서는 모든 요괴, 달러, 또는 태국 바트로 표시돼 있는 것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적은 금액을 지불할 때나 마를 때나 나가게 될 때를 대비해 언제나 적당량의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ATM

현재는 국제 네트워크 ATM이 비엔티안에 유일하게 있지만 조만간 늘어날 예정이다. 비록 비엔티안 내지만 하지만 말이다. 한 번에 K700,000(약 US\$70)까지 인출할 수 있다.

통화

중국인들과 특히 시장에서 통화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태국이나 베트남만큼 바가지를 씌는 건 아니므로 가격이 아주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조용한 곳보다는 흥정 기술의 두 팔을 걷어붙이고 과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잘 통한다.

외국인들은 종종 현지인들보다 높은 요금을 지불한다. 특히 관광지화가 많이 된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질을 씌우는 것이 유령처럼 번

지고 있다. 똑똑 기사들이 제일 심하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가격 차이가 근소하고, 대개 화를 낼 정도는 아니다.

현금

유일한 합법적 통화는 라오스 킵(Kip)이다. 그러나 킵, 미국 달러, 태국 바트 이 세 가지 통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받고, 섞어서 내도 받아준다. 킵은 화폐 단위가 K500, K1000, K2000, K5000, K10,000, K20,000 그리고 세로 생긴 K50,000짜리 지폐가 있다. 이 지폐는 K20,000짜리와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조심해서 사용할 것.

신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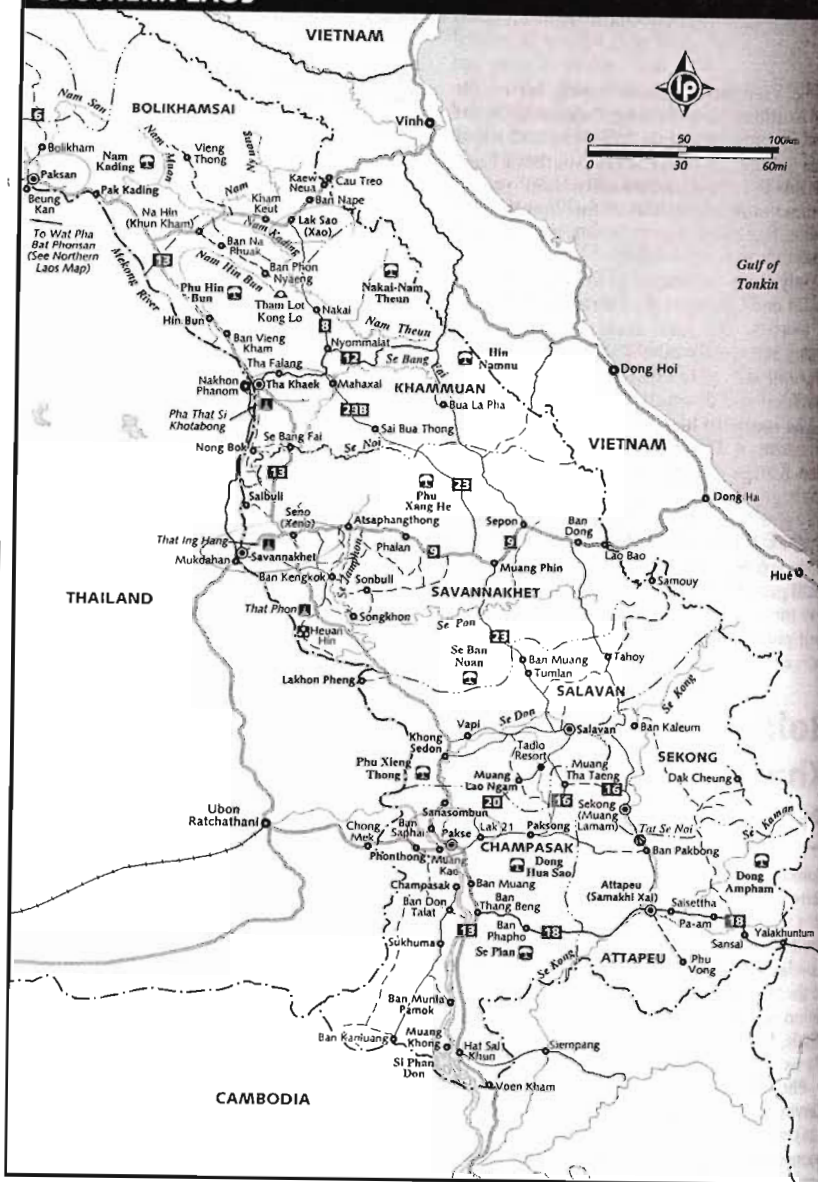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의 일부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기념품점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받는다. 그리고 이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아멕스와 JCB 비자도 받아준다. Banque pour le Commerce Extérieur Lao(BCEL)는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방비엠퉁, 싸완나켓, 팍쎄에 지점이 있으며, 비자 신용카드/데빗 카드로 현금 서비스/지급이 가능하다. 3%의 수수료가 있다.

환전

미국 달러와 태국 바트는 라오스 전역에서 환전할 수 있다.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 그리고 일부 지방의 은행에서는 유로, 태국 바트, 영국 파운드, 일본 엔, 그리고 캐나다, 미국, 호주의 달러를 바꿔준다. 미국 달러 여행자수표는 대부분의 지방 주도(州都)에서 바꿀 수 있으며, 현금보다는 환율이 좋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가장 환율이 좋은 곳은 라오스 해외 무역 은행인 BCBL이다. 종종 금은방이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환전상들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더 오래 영업을 한다는 점이다. 시골 지역에서는 환율이 매우 안 좋을 수 있다. 가장 최근의 환율 정보는 www.bcellaols.com에서 확인하자.

SOUTHERN LAOS



as well as a smaller section of Bolikhamsai. Forest – including extensive stands of wet and dry evergreen, old growth pine, cypress and riverside forest – covers an estimated 93% of the area, hence Nakai-Nam Theun NBCA is an incredibly important habitat for the country's wildlife heritage. Over a dozen threatened species live in the area, including elephant (one of the country's largest herds), giant muntjac (endemic to this region), gaur, banteng, Asiatic black bear, Malayan sun bear, clouded leopard, tiger and the saola (Vu Quang ox), a horned animal unknown to scientists before its discovery in 1992 in Vietnam's neighbouring Vu Quang Nature Reserve. The saola has since been sighted on Laos' Nakai plateau, only a third of which falls within the protection of the Nakai-Nam Theun NBCA.

PAKSAN

ປາກສັນ

pop 35,000

The capital of Bolikhamsai Province, a town at the mouth of the Nam San (San River) where it feeds into the Mekong River, functions as a commercial centre and army base, but is of little interest to the visitor. On the opposite bank of the Mekong from Paksan is the Thai town of Beung Kan, but the border crossing is for Lao and Thai citizens only.

Until the mid-1990s foreigners were discouraged from staying in Paksan because of guerrilla activity linked to the Thai Isan Liberation Party, an anti-Communist group led by Thai-Lao trade union activists and two former Thai MPs. In the last five or six years, however, there have been no threats of violence. The local population is predominantly Phuan, a tribal Thai group; many are Christian, which makes them doubly suspicious in the eyes of Lao authorities. The area has become considerably more secure since the upgrading of the highway between Vientiane and Paksan.

Places to Stay

Although at any given time there may be two or three places offering rooms in Paksan, at the moment the only one worth look-

ing at is *Manolom Guest House & Restaurant*, where simple single/double rooms with shared bath cost US\$2.25 a night.

Places to Eat

There are several *noodle stands* near the Paksan Phattana Hotel as well as a couple of regular Lao restaurants. The *Sainamsan Restaurant* on the river and *Nang Daet* (the sign says 'Nang Deth') on Rte 13 serve standard Lao and Thai meals for US\$1 to US\$2 a dish.

Getting There & Away

From the Talat Sao (Morning Market) bus terminal in Vientiane, buses leave three times a day (7am, 11am and 2pm) for Paksan (US\$0.90, two hours). Buses are also available from a small terminal near Km 6 outside Vientiane.

If you are just visiting Wat Pha Baht Phonsan, you won't need to go all the way to Paksan, as the wat is just over the Vientiane Prefecture border, before Paksan. It's one hour from Vientiane by private vehicle, 1½ hours by public bus – hop on any Paksan-bound bus and ask to get off at the wat; catch any Vientiane-bound bus later in the day if you don't intend to stay in Paksan or continue south.

AROUND PAKSAN

Wat Pha Baht Phonsan

ວັດພະບາດໂພນສັນ

Eighty kilometres north-east of Vientiane via Rte 13, on the way to Paksan, is a large *pha baat* (Buddha footprint) shrine, an important pilgrimage place for lowland Lao from Bolikhamsai and Vientiane. The highly stylised 'print' – along with a substantial reclining Buddha figure – sits on a sandstone bluff along with older monastic structures and stands of bamboo. A well-ornamented 1933-vintage stupa is reminiscent of That Ing Hang in Savannakhet, and the drum tower contains a drum whose head measures 2m in diameter, one of the largest in the country. Unfortunately, recent construction has not added to the temple's charm. Wat Pha Baht Phonsan hosts a large festival on the full moon of the third lunar month (around July).

Nam Kading

ນາມກາດິງ

The Nam Kading, feeding into the Mekong River about 50km east of Paksan, is one of the most pristine rivers in Laos. Flowing through a forested valley surrounded by hi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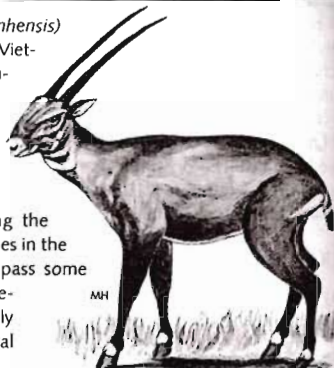
hills and limestone formations, this broad, turquoise-tinted river has tremendous potential for wilderness recreation. Confirmed animal rarities in the area include elephant, giant muntjac, pygmy slow loris, François langur, Douc langur, gibbon, dhole, Asiatic black bear, tiger and many bird species.

Horns of a Dilemma

The 1992 discovery of the spindleshorn (*Pseudoryx nghetinhensis*) in Vietnam's Vu Quang Nature Reserve in west-central Vietnam – very near the Laos-Vietnam border – stimulated intense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potential for finding other large, undiscovered mammals in the area. Surveys in 1993 and 1994 confirmed the existence of the spindleshorn in Laos in the northern reaches of the newly decreed Nakai-Nam Theun National Biodiversity Conservation Area (NBCA), a reserve that runs along the eastern portions of Bolikhamsai and Khammuan Provinces in the Annamite Chain. Its range is now thought to encompass some 4000 sq km of montane evergreen broad-leaved forest between 200m and 2000m above sea level – most frequently at 500m to 1000m – along both sides of the central Laos-Vietnam border.

Researchers from the Vientiane office of the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examined a live spindleshorn (called *nyāang* in Lao) captured in Khammuan Province for the first time in early 1996. This encounter, along with physical evidence left behind by local hunts and horn collections, indicates the antelope-like animal stands 80cm to 90cm at the shoulder and weighs up to 100kg. Its distinctively long, slender horns have a slight backwards curve and measure 40cm to 50cm. At the moment there is some disagreement among zoologists as to whether the *nyāang* properly belongs in the Bovinae subfamily – which includes wild cattle, spiral-horned antelopes and nilgai – or to the goat-related Caprinae. The spindleshorn has already earned the distinction of being only one of three land mammals to earn its own genus in the 20th century; most likely the animal will be assigned its own zoological subfamily very soon. Total numbers for the spindleshorn are difficult to estimate; the infrequency with which it's encountered even by local hunters confirms the belief that it is an endangered species. In 1994 it was added to th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Appendix 1.

Hunting in the area poses a continual threat, as virtually every Lao and Vietnamese household in the Annamite Chain possesses at least one home-made hunting rifle and a set of snare lines; automatic rifles aren't unknown and ammunition is cheap. Logging and damming pose additional threats in the form of further habitat loss in the Nam Theun highlands where the spindleshorn makes its home. In spite of the legal protection afforded to the area contiguously covered by the Nakai-Nam Theun NBCA and by Vietnam's Vu Quang Nature Reserve, most of the human activity traditionally practised in the region will continue to degrade the primary forest and its endemic wildlife, unless some steps are taken to enforce protection of a core area. The spindleshorn can be viewed as an indicator species for the region's environmental health; if allowed, its disappearance would darken the outlook for biodiversity in Laos.



Unpaved roads parallel the Nam Kading upriver some distance, so launching places for canoes, rafts or kayaks are available. **Tat Wang Fong**, about 60km from Rte 13 by road along the river, is a small waterfall in a very picturesque setting.

Ban Nape

ບັນນາປະ

The area around Ban Nape (pronounced *nā-pae*), roughly 200km south-east of Vientiane via Rtes 13 and 8 near the Vietnamese border, is well known for its scenic limestone formations. You'll have to have your own vehicle to reach Ban Nape, as there is no regular public transport from Rte 13.

THA KHAEK

ທາແຂກ

☎ 051 • pop 68,300

Once an outpost of the Mon-Khmer Funan and Chenla empires, when it was known as Si Gotabura (Si Khotabun in Lao) and was ruled by King Suryavarman (AD 578–614), the capital of Khammuan Province traces its present-day roots to French colonial construction in 1911–12. The town name means Guest Landing, a reference to its earlier role as a boat landing for foreign traders. Before the Indochina War (and during the war until the North Vietnamese Army and Pathet Lao cut the road to Vientiane), Tha Khaek was a thriving gambling town for day-tripping Thais.

Until the Revolution the population was 85% Vietnamese, many of whom had come with the French and/or had fled the Viet Minh movement in North Vietnam. Their numbers dipped drastically as many Vietnamese left in the late 1970s to seek their fortunes in more favourable climes. Today Tha Khaek is a quiet transport and trade outpost – mostly lowland Lao, Vietnamese and Thai.

The surviving Franco-Chinese architecture, mixed with newer structures, is similar to that found in Vientiane and Savannakhet. At the western end of Thanon Kuvoravong near the river is a modest fountain square. Save for the occasional highway project en-

gineer, only a few foreigners stop over here; for those people seeking urban Mekong Valley culture, this laid-back, friendly town is worth a couple of days.

Opposite Tha Khaek on the Thai side is Nakhon Phanom, which is a legal border crossing for foreigners. Thai investors have offered to finance a new highway from Tha Khaek to the Vietnamese border to facilitate trade between Thailand, Laos and Vietnam (and beyond via the Gulf of Tonkin). There has even been talk of building an international bridge across the Mekong River between Nakhon Phanom and Tha Khaek. Both proposals are on hold at the moment due to the current state of the Thai economy.

Information

Money A branch of Banque pour le Commerce Extérieur Lao (BCEL), on the northern side of Thanon Kuvoravong, about 200m east of the post office, changes Thai baht, US dollars and Lao kip. Both cash and travellers cheques are accepted, and the bank can also arrange a cash advance on Visa. Lao May Bank has a branch at the corner of Thanon Kuvoravong and Rte 13, as well as an exchange booth at the immigration post at the pier. Both Lao May locations offer cash-only services.

Post & Communications You can post letters and arrange for long-distance phone calls at the main post office on Thanon Kuvoravong.

Talat Lak Sawng

ຕະຫລາດຫລັກສອງ

In town the large **Talat Lak Sawng** (Km 2 Market; Cnr Rte 13 & Thanon Kuvoravong) purveys hardware, clothes, fresh produce and just about everything else the people of Tha Khaek use in daily life. In addition to the usual gold shop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vendors selling silverwork.

Places to Stay

Khammouane Hotel (Khammuan Sai Khong Si San; ☎ 212216, Thanon Khem Khong) Singles/doubles/VIP rooms US\$10/12.50/16.25.

Khammouane, a big four-storey, white building with a curved front facing the Mekong, is still the best deal in town. Sunset views over the river are tremendous. It has large, plain, clean rooms with TV, fridge, air-con, hot water and good mattresses. Most *samlāw* (*samlor*; three-wheeled taxi) drivers know it simply as 'Si San' (Four Floors). The staff are friendly and the restaurant next door will deliver to your room.

Sooksomboon Hotel (☎ 212254, 212225, *Thanon Khem Khong*) Small/large rooms US\$8.75/12.50. Housed in a former police station from the French era, this hotel stands a little upriver from the Khammouane. The interior of the hotel has been redone in a surreal Art Deco style; the staff are friendly but there's the general feeling that rooms here are used for assignments with women from the adjacent nightclub. Large, clean rooms in the main building feature high ceilings, air-con, hot water and TV. A newer motel-like building around the

back has some less expensive rooms with air-con and hot water. Rooms on the north-east side of the old building are the quietest.

Southida Guest House (☎ 212568, *Thanon Chao Anou*) Doubles/triples with TV, air-con & hot-water shower US\$10/12.50. Friendly, clean, family-run Southida, in a modern two-storey concrete building a bit north of the fountain square, is a good choice for this price range.

Mouthong Guest House (☎ 212387, *Thanon Nong Bua Kham*) Singles/doubles with air-con & hot-water shower US\$6.25/7.50. One of the double rooms has a small sitting area and a bathtub. This one-storey cement house is not as new or as well kept as the Southida.

Khamuane International Hotel (☎ 212171, *Thanon Kuvoravong west of Thanon Unkham*) Small singles with small beds, bath & fan/air-con US\$6.25/7.50, larger rooms with air-con & bigger beds US\$10, doubles with air-con & small attached sitting area

US\$12.50. Formerly the Chalernxai Hotel, this is an old 60s-era house divided into 20 rooms; it has been renovated and is reasonably clean. There's a restaurant next door under the same ownership.

Thakhek May Hotel (☎ 212043, *Thanon Vientiane*) Formerly a budget hotel, the Thakhek May was closed for renovations when we last stopped by.

Phoudoi Hotel (☎ 21204, *Thanon Kuvo-ravong*) Rooms with 2 beds, TV, air-con, fan & hot-water shower US\$9.40. Phoudoi, near the main junction for Rte 13 on the eastern side of town, has a modern-looking facade, but it's not as good as the Khammouane Hotel. The rooms are looking worn and service is slack. Just behind the Phoudoi stands the Baw Phaw Daw Discotheque; the name stands for 'Bolisat Phattanakhet Phu Doi', the name of the military-backed company that owns the hotel and dominates the economy and politics of Khammuan Province.

Places to Eat

Although there is no shortage of small restaurants and noodle shops, none of them are culinary stand-outs.

Sooksomboon Restaurant (*Thanon Unkham*) Dishes US\$1-4. Open evenings only. This semi-fancy spot offers good Thai, Lao and Chinese *phāñān taam sang* (food made to order).

Phavilai Restaurant (*Thanon Kuvo-ravong*) Dishes US\$1. Open morning until evening. Phavilai, not far from the river landing and the fountain square, serves standard Lao-Chinese rice and noodle dishes.

You'll also find several *khāo jū* (*baguette*) vendors on the fountain square in the morning.

Saeng Rung Reuang Dishes US\$1. This small outdoor restaurant on the western end of the fountain square above the riverbank specialises in *fōe* (rice noodles) and rice dishes.

Just upriver from the fountain square is a small, unnamed *noodle shop* run by two women who make delicious *fōe hāeng*, dry rice noodles served in a bowl with various herbs and seasonings but no broth; regular *fōe* is also available.

Phae Saen Suk (opposite the unnamed noodle shop) and **Phae Phonekham** (just north of *Phae Saen Suk*) are two new floating bamboo-and-thatch restaurants with dishes for about US\$1 to US\$3. Both are primarily drinking establishments serving beer, but they also serve cocktail snacks. Phae Phonekham is larger and has the better menu of the two and also offers *phāñān taam sang*. Neither one seems to get started until late afternoon.

There are lots of *noodle vendors* at Talat Lak Sawng, plus a smaller cluster of *noodle and rice shops* near Talat Lak Sam (Talat Saksombun) and near the Vientiane bus terminal on Rte 13. Look for sweet Tha Khaek watermelons.

In an old colonial building just north of the unnamed noodle shop is an *ice-cream parlour* that does delicious fruit shakes. When in season, the mango shakes are not to be missed. This is a popular evening spot with the locals.

Getting There & A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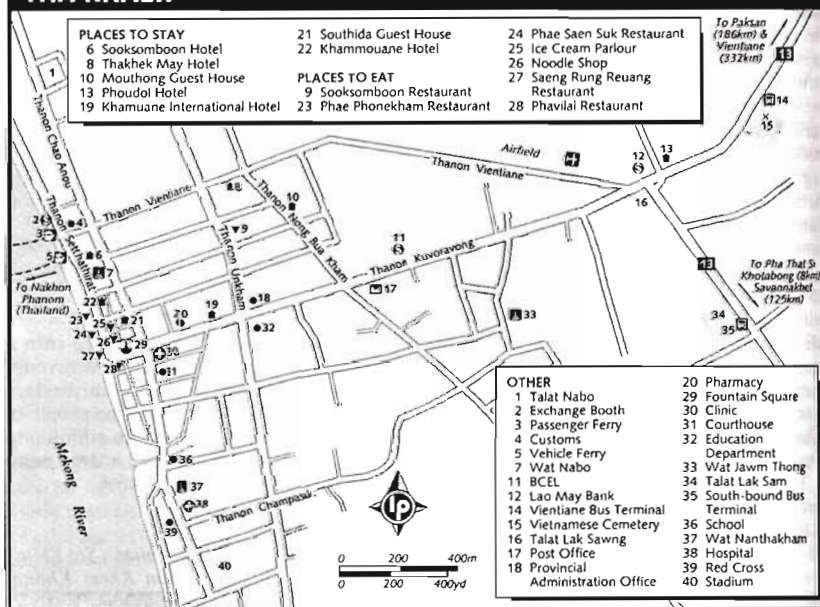
Air Now that road travel between the capital and Tha Khaek has improved, Lao Aviation has suspended all flights to Tha Khaek, and in fact the runway there has been taken over by new government buildings.

Bus & Sāwngthāew Two direct buses a day (US\$2, six to seven hours, 360km) leave Vientiane's bus terminal for the trip to Tha Khaek; in the opposite direction, a bus leaves the Vientiane terminal in Tha Khaek at around 6am. You can also catch Savan-nakhet or Pakse-bound buses and get off in Tha Khaek for the same fare.

In Tha Khaek the main terminal for Vientiane stands next to a Vietnamese cemetery on Rte 13 at the north-eastern edge of town. Other south- or north-bound passenger vehicles depart from Talat Lak Sam (Talat Saksombun).

Sāwngthāew (passenger trucks with two rows of seats down the back) to Savan-nakhet (US\$1.65, 2½ hours) depart from the Talat Lak Sam terminal when they're full from about 6am to 4pm.

THA KHAEK



suggests that you make advance reservations so that the staff can stock up on provisions – though this situation might change once the place gets more well known. The staff can arrange guided trips to Tham Lot Kong Lo as well as other caves in the area.

The only other guesthouse in the area, at this writing, is a *no-name* affair right on Rte 8 about 500m south of the Ban Na Hin market. Very basic rooms in a wooden house (no fans or mosquito nets) with shared bath cost US\$3.75 per person. No English is spoken here. *Fœ shops* can be found in the Ban Na Hin market.

Because of the distances involved and the spotty local transport, it's best to stay at the Sala Hin Boun if you want to visit Tham Lot Kong Lo. In theory, it's possible to stay at the guesthouse in Ban Na Hin and make it out to Tham Lot Kong Lo and back in one day – but only if you have your own bike, or all the transportation connections go off without incident and you are a very brisk walker for that last 8km!

Getting There & Away Ban Na Hin is easiest reached from Tha Khaek on buses (US\$1.60) or *sāwngthāw* (US\$2.50) bound for Lak Sao. It takes about three hours.

It's also possible to get to Ban Na Hin from Vientiane on Lak Sao-bound buses. From Ban Na Hin, you can then board a jumbo or *lot thāi* (an open cart pulled by a motorised plough) for the 10km ride along a dirt road to the village of Ban Na Phuak. It costs US\$0.75 per person or US\$6.25 if you hire the jumbo outright. If you have a choice between jumbo or lot thāi, be sure to take the jumbo – the motorised ploughs are very slow; ie, the jumbo ride takes less than an hour, the motorised plough over two. From Ban Na Phuak the road becomes rough and may not be passable in the rainy season.

During the dry season it may be possible to get a jumbo all the way from Ban Na Hin to Phon Nyaeng (where Sala Hin Boun is located), but jumbo drivers will want at least US\$18 to do the run. If not, you have three choices to move on from Ban Na Phuak to Phon Nyaeng: hire a motorised canoe from one of the villagers (US\$18,

two hours); hire a lot thāi (US\$12.50, two hours); or, if you're travelling light, a villager with a motorcycle might be persuaded to do the hour-long trip for US\$12.50.

The track between Ban Na Phuak and Phon Nyaeng extends about 12km. If you have reservations at the Sala Hin Boun and specify that you want them to do so, they'll have a motorised canoe waiting for you at Ban Na Phuak. This will cost you US\$25.

From Phon Nyaeng it is another 8km to Ban Kong Lo. This could be done by bicycle if you had one (bikes can be rented from the Sala Hin Boun for US\$1.25 a day), or on foot. Motorised canoes can be hired in the village of Ban Kong Lo, about 1km west of the tunnel's western mouth, for the round-trip passage through the tunnel, for US\$9. Alternatively, if you are staying at Sala Hin Boun, you can hire its canoe which holds four passengers for US\$40. This price includes a picnic lunch and guide; the round trip takes about six hours.

Lak Sao

ຫລັກສາວ

pop 24,000

While the forest, mountain and karst scenery along the upper stretches of Rte 8 on the way to Lak Sao (literally, Kilometre Stone 20) is strikingly beautiful, the town itself is a disappointment. Located in Bolikhamsai Province between Kham Keut and the Vietnam border, the town is relatively new and is the headquarters for logging operations that are currently decimating forests in eastern Bolikhamsai and Khammuan Provinces.

Lak Sao has become the pet development project of Phattanakhet Phu Doi Co, an enterprise headed by a Lao general involved in logging, hotels, construction and cargo transport. The district has a strong Vietnamese presence, and there are long-term plans afoot to transform the area into an industrial zone servicing the Vietnam-Laos-Thailand trade along Rtes 8 and 12.

The market at Lak Sao was once known for its trade in wildlife and forest products, but these days there is little on offer – no

doubt due to the destruction of forests in the vicinity. Families of White Hmong and Striped Hmong can occasionally be seen trading for provisions in the market. You can hire local jumbos to investigate nearby limestone caves (the most accessible, Tham Mangkhon, is 17km north-west of town on Rte 8) or visit a hot springs (another 1km farther).

If you're road-weary and making the crossing to/from Vietnam through the Kaew Neua pass, Lak Sao can be a place to stop for the night. A hydroelectric plant between Lak Sao and the border supplies 24-hour electricity.

Lak Sao can be very chilly in the cool season, December to Febru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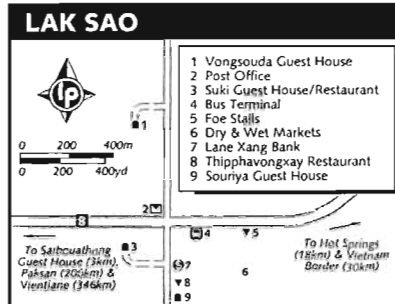
Information Lane Xang Bank will change US dollars, Thai baht, UK pounds and Vietnamese dong at the same rate as in Vientiane.

The post office is west of the main intersection in town, and is open 8am to noon and 1pm to 5pm Monday to Friday, 8am to noon Saturday.

Places to Stay & Eat *Souriya Guest House* (☎ 051-341111, about 50m south of the bank) Rooms with fan US\$3.75, with fan & hot-water bath US\$6.25, with hot-water bath & fan/air-con US\$7.50/8.75. This relatively new three-storey guesthouse is currently the best choice in town. All 20 rooms are comfortable and clean, with two double beds and tiled or wood floor; some of the larger rooms even have bathtubs.

Vongsouda Guest House (☎ 051-341035, about 300m north-west of the bus terminal) Rooms US\$8. This friendly guesthouse offers eight very clean rooms, all with air-con, hot-water bath and fridge. Guests can hang out in the pleasant sitting area in the front room, which is equipped with a fireplace for chilly evenings, as well as at covered tables by a pond out in the front garden.

Suki Guest House/Restaurant (in Vientiane ☎ 021-214357, west down a lane opposite the bank) Rooms with fan & hot-water shower US\$6. The fairly new Suki Guest



House features clean rooms with decent mattresses. There's an attached disco, but the owners say it's 'probably not too noisy' due to the use of soundproofed walls. A new attached restaurant has an extensive menu, unfortunately offering some dishes (such as mousedeer and roe-deer lāp) that would make environmentalists cringe.

Saibouathong Guest House Singles/doubles US\$7/8. This guesthouse offers very simple rooms about 3km west of the town centre.

Thippavongxay, next door to the Souriya Guest House, offers an extensive menu similar to the menu at Suki Guest House.

There are two small *restaurants* near the market that serve Lao food, as well as several *fœ stalls* along the outside of the market.

Getting There & Away Buses between Lak Sao and Tha Khaek (US\$3.75, five hours) depart from Tha Khaek at 6am and 7.30am and Lak Sao at 5.30am and 7am.

Flights between Vientiane and Lak Sao (US\$50, one hour 10 minutes) go only when at least six passengers make advance bookings through the head office in Vientiane – which isn't very often.

Cau Treo (Vietnam) The Kaew Neua/Cau Treo border crossing is about 30km from Lak Sao and is open 8am to 5pm. There's a Lane Xang exchange booth to convert Lao kip into Vietnamese dong or vice versa that's supposed to be open the same hours as the crossing. Jumbos to/from the border have to be hired – the asking price for the

one-hour haunt is US\$10 for charter, otherwise US\$1 per person shared. Mornings are the best time to get a shared jumbo. There are daily buses to Vinh from Cau Treo.

Savannakhet Province

Home to around 15% of all Lao citizens, Savannakhet is the country's most populous province, and is a very active junction for trade between Thailand and Vietnam. The population consists of lowland Lao, Thai Dam, several small Mon-Khmer groups (Chali, Bru, Kaleung, Katang, Lave, Mangtong, Pako and Suay), Vietnamese and Chinese. The villages of Savannakhet are among the most typically Lao, especially those in the Jamphon Valley near Ban Kengkok (south-east of the capital).

Savannakhet is the best place in Laos for seeing the flotsam of the Ho Chi Minh Trail, the primary supply route to South Vietnam for the North Vietnamese Army during the Indochina War. It is also the main gateway for visitors arriving from Vietnam via Lao Bao.

About 85km north of Savannakhet, the 1050-sq-km Phu Xang Hae NBCA covers a hilly area of dense evergreen and deciduous forest. Surveys have suggested the presence of 17 bird species deemed of conservation importance (such as the Siamese fireback pheasant and red-collared woodpecker), along with animals like elephant, giant muntjac, gaur, lesser slow loris, Douc langur and tiger.

SAVANNAKHET

ສະຫວັນນະເຂດ

☎ 041 • pop 124,000

Officially known as Muang Khanthabuli (but more commonly called Muang Savan or simply Savan), this growing district just across the Mekong River from Mukdahan, Thailand, has become a major relay point for trade between Thailand and Vietnam. From Savan, Rte 9 extends east all the way

to the Vietnamese border at Lao Bao, where it continues eastward to the port of Dong Ha on the lower Gulf of Tonkin. Savan is also a lumber centre and there are several lumberyards on the outskirts of town.

Information

Foreign Consulates The Thai consulate (☎ 212261) maintains a temporary office at the Nanhai Hotel (see Places to Stay – Mid-Range & Top End in this section). There is also a Vietnamese consulate (☎ 212418) on Thanon Sisavangvong. Both consulates can issue visas. It takes four working days to process a tourist visa for Vietnam, three working days for a Thai visa.

Money You can change money (cash only) at the Lao May Bank on Thanon Udomsiri or at the BCEL on Thanon Latsavongseuk.

Post & Communications There is a post office on Thanon Khanthabuli just south of the town centre. The long distance phone office is open from 8am to 10pm.

Phitsamay Video, on the south-eastern corner of the plaza, offers three terminals for your online ne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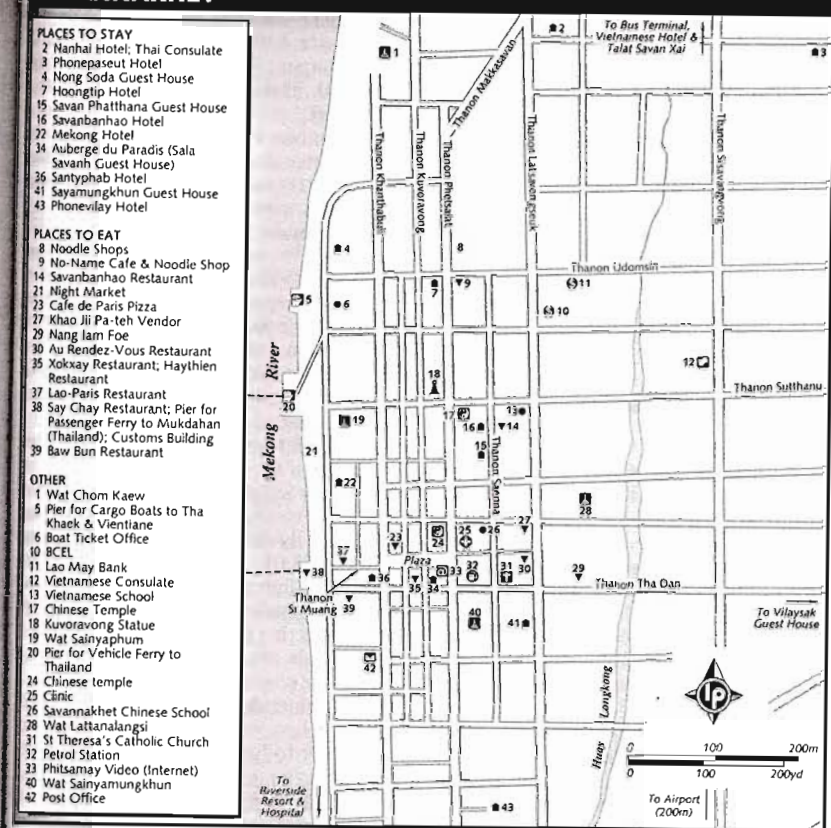
Travel Agencies Savanbanhao Tourism Co (formerly Savannakhet Tourism Co ☎ 212944), housed in the Savanbanhao Hotel on Thanon Saenna, has information on local attractions and can arrange tours to Sepon, the Ho Chi Minh Trail, Heuan Hin and other spots outside the city.

Town Centre

The Vietnamese presence in Savan grew during the French era and, while it shrunk during the Indochina War, a Vietnamese school, Mahayana Buddhist temple and a Catholic church testify to a continued Vietnamese influence.

Like Vientiane and Luang Prabang, Savan has a number of French colonial and Franco-Chinese buildings, most of which are found in the small business district near the intersection of Thanon Khanthabuli and Thanon Si Muang. Daily activity centres around the cargo and passenger piers for

SAVANNAKHET



ferries across the river to Mukdahan. Boats are loaded to the gunwales with Chinese- and Vietnamese-made goods – particularly ceramics – on their way to Thailand.

Another centre of activity is the Talat Savan Xai, a substantial newer market area off Thanon Sisavangvong near the bus terminal. The market runs all day and is visited by a fascinating variety of people.

Along Thanon Phetsalat in the town centre, near Wat Sainyamungkhun, are two *pétanque* grounds where older Lao and Vietnamese men toss metal balls back and forth in the French game.

Savannakhet Provincial Museum

ພິພິດທະພັນເຂດ ສະຫວັນນະເຂດ

Housed in a French-era mansion near the provincial hospital, this museum (500m south of the town square; admission US\$0.40; open 8am-noon & 2pm-4pm Mon-Sat) is a good place to get a look at relics of the Indochina wars without having to make a trip to the Ho Chi Minh Trail. In the museum compound are artillery pieces and the corroding remains of an American-built T-28, the main combat aircraft of the Royal Lao Army. Just outside the front gate of the

museum compound, on the grounds of the School of Medicine, is an American-built tank that also once served the RLA. Inside the museum are displays of the numerous kinds of deadly UXO that still blanket much of Laos, as well as stacks of rusting rifles of varying makes and vintages. The majority of the museum, however, is dedicated to photographs of Kaysone Phomvihane, who was born less than 1km away.

The posted hours are not scrupulously followed. If it looks closed when it shouldn't be, try asking at the curator's house – a small wooden building in the south-western corner of the School of Medicine compound.

Wat Lattanalangsi

ວັດລັດຕະນະລັງສີ

Nearly as large as Wat Sainyaphum, this wat was built in 1951 and houses a monks' primary school. The *stī* (ordination hall) is unique in that it has glass windows (most windows in Lao temples are unglazed). Other structures include a rather gaudy Brahma shrine, a modern *sālaa lōng thām* (sermon hall) and a shelter containing a 15m reclining Buddha backed by *jataka* (stories of the Buddha's past lives) paintings.

Places to Stay – Budget

Santaphab Hotel (☎ 212177, *Thanon Tha Dan*) Singles & doubles with fan/air-con & bath US\$2.90/3.75. Savan's cheaper hotels were once clustered in the older part of town towards the ferry piers. Only this one is still open, a bit run-down but OK, two blocks east of the passenger ferry pier to Thailand.

Savanbanhao Hotel (☎ 212202, *Thanon Saenna*) Rooms with fan & 1 bed US\$2.90, with air-con & 2 beds without/with bath US\$3.95/4.45, with TV US\$5.45. This slightly more upmarket budget place can be found in the middle of town. Consisting of four two-storey houses built around a series of courtyards, the Savanbanhao has the largest variety of rooms in town. The mid-price rooms are very good value. This is also the headquarters for Savanbanhao Tourism Co.

Savan Phatthana Guest House (☎ 213955, *Thanon Saenna*) Rooms with cold-water bath & fan/air-con US\$3.75/5.65, larger VIP rooms with air-con US\$7.50. This hotel is located in a two-storey grey concrete building just south of Savanbanhao Hotel. Second-floor rooms share a common veranda. There's a restaurant on the premises, but it hadn't yet started operations when we last visited.

Nong Soda Guest House (☎ 212522, *about 200m north of Wat Sainyaphum*) Doubles US\$6.25. This modern house on the river's edge has recently been converted into a guesthouse. All rooms have one big bed, air-con, bath, TV and fridge. An open-air restaurant sets up in the front yard in the evenings, but it seems to be more for drinking than eating.

Vilaysak Guest House (☎ 213604, *about 1km east of the Catholic church on Thanon Tha Dan*) Singles with fan US\$2.40, with fan & bath US\$3.50, triples with fan & bath US\$4.50, doubles with air-con & hot-water bath US\$5.65. Yet another modern house converted into a guesthouse, this one has a small garden out the front and is a very quiet, relaxing place to stay.

Towards the southern end of town are two other places worth considering.

Sayamungkhun Guest House (☎ 212426, *Thanon Latsavongseuk*) Rooms with fan/air-con & fridge US\$4/7. The very friendly Sayamungkhun offers spacious, spotlessly clean rooms in a big house, all with toilet and shower. The rooms at the back are much quieter than those at the front. The sign out the front just reads 'Guest House' in English.

Phonevilay Hotel (☎ 212284, 172/173 *Thanon Phetsalat*) Rooms with fan & 2 beds without/with bath US\$2.50/3.15, with air-con & shower US\$4.40, other rooms of varying sizes with air-con, fridge & TV US\$5.60-7.50. Phonevilay consists of one- and two-storey cottages built around a small courtyard. As the rates climb the rooms get bigger and the mattresses softer.

Mekong Hotel (☎ 212249, fax 212824, *Thanon Khem Khong*) Rooms with hot-water shower, air-con, fridge, TV, phone & 2/3 beds US\$10/11.25. On the river in an

old French colonial villa, the Vietnamese-owned Mekong has recently been renovated to Vietnamese tastes. This has included painting with brighter colours, covering most of the French garden with concrete, hanging flashy signs out the front and stringing Christmas lights on the outer walls in kitschy floral designs. A downstairs nightclub remains, along with a line of tiny short-time rooms along one side of the compound. The rooms in the villa are now clean and the bathrooms have been renovated. Two rooms upstairs are available to non-Vietnamese: One has two beds and a view of the Mekong. The other has three beds and overlooks Wat Sainyaphum. It's pretty good value if you don't mind the noise of the nightclub.

If you have an early bus to catch, or if you simply want to stay in the cheapest place in town, there is a one-storey Vietnamese-owned *hotel* built along one side of the bus terminal north of town with bare two- and three-bed rooms for just US\$1.25 per person.

Places to Stay – Mid-Range & Top End

Auberge du Paradis (*Sala Savanh Guest House*; ☎ 212445, © salalao@laonet.net, *Thanon Kuvoravong*) Singles/doubles with air-con, hot water, fan & mosquito net US\$20/25 Oct-Apr, US\$15/20 the rest of the year. The centrally located Auberge du Paradis, near the main square, is housed in a restored 1926 French villa. The rooms are spacious, and there's a garden at the back with a sitting area where meals can be arranged in advance.

Phonepaseut Hotel (☎ 212158, fax 212916, *Thanon Santisuk*) Rooms with fridge, TV, air-con & hot-water showers US\$25. Two blocks north of Thanon Udomsin and off Thanon Sisavangvong, the friendly Phonepaseut offers clean, modern rooms around a small courtyard and a 25m-long pool across the street – probably the best pool in all of Laos; it's free for guests or US\$1 for visitors. Rooms are sometimes discounted down to US\$20. English is spoken here, and rooms rates include breakfast.

Hoongtip Hotel (☎ 212262, fax 212320, *Cnr Thanon Phetsalat & Thanon Udomsin*) Rooms with air-con & hot water US\$18, larger VIP rooms US\$35. Hoongtip is a four-storey neo-Gothic place. Built from the cheapest materials, it's looking a bit run-down. There is a restaurant and nightclub, but no lift. Rates include breakfast.

Nanhai Hotel (☎ 212371, fax 212380, 313 *Thanon Latsavongseuk*) Small singles with air-con, phone & bath US\$16, doubles with same amenities plus satellite TV US\$25, suites with fridge US\$44. The huge six-storey Nanhai is farther north at the edge of town off Thanon Latsavongseuk. Built by a company from Guangzhou, China, the standards were fairly high at first, but have undergone a steady decline since opening. Some of the facilities on the premises include a swimming pool (full of algae and mosquito larvae when we stopped by), lift, coffee shop, and a restaurant that serves Chinese, Thai and French dishes. In typical Chinese fashion, the hotel provides a thermos of hot water and lidded ceramic tea mugs for each room.

Places to Eat

Savan isn't exactly a culinary capital but there are plenty of opportunities to sample Thai, Chinese and Vietnamese food. Local specialities include *sin sawān* (a slightly sweet, dried, roasted beef) and *jaew pga-dæk* (a thick sauce of mashed chilli, onion, fish sauce and lotus bulb).

Along the Mekong riverbank, opposite the Mekong Hotel and Wat Sainyaphum, a small *night market* convenes each evening. Most of the vendors offer only bagged snacks and cold beverages, but a few make fresh *tām māk hung* (spicy green papaya salad), grilled chicken and kebabs. This can be a nice breezy spot for watching the sun set over Mukdahan.

Cafe de Paris Pizza (*northern edge of the town plaza*) Dishes US\$2-5. Open 11am-9pm daily. In a tastefully renovated shophouse, this French-run restaurant serves good pizzas and other European fare, and is popular with NGO staff as well as Lao families out on a splurge.

Getting There & Away That Ing Hang is 12km north-east of Savan via Rte 13, then 3km east on a dirt road. Any north-bound bus passes this turn-off.

Heuan Hin

ເຮືອນຫິນ

On the Mekong River south of Savan is this set of Cham or Khmer ruins (the name means Stone House), built between AD 553 and 700. Of interest mainly to pre-Angkor art fanatics, the unrestored ruins are little more than a few walls and piles of laterite rubble. No carvings remain; the only known lintel from the site is in Paris.

The best way to get to Heuan Hin is by land. You must travel 75km south via Rte 13, then 15km west along a rough road. The Savanbanhao Tourism Co at the Savanbanhao Hotel says it can provide a van, driver and guide to Heuan Hin (and to That Phon – see the following entry) and back for US\$80.

It may also be possible to get there by boat along the Mekong. When the water's high enough it's a 70km, three-hour trip by chartered longtail boat (that is if you can find a boat pilot willing to make the trip).

That Phon

ທາດໂພນ

Said to date from the 16th century, this large, rounded white stupa is quite similar to Luang Prabang's That Makmo. Like the latter, That Phon is said to have once contained a cache of valuable Buddha images. It's 65km south of Savan off Rte 13 on the way to Heuan Hin.

Phu Xang Hae NBCA

ປ່າສະຫງວນພູຊ່າງແຂ

The Swedish government and the Laos Provincial Forestry office have teamed up to offer a nature tour through the jungles of Phu Xang Hae (Wild Elephant Mountain), out of Savannakhet. While on the five-day trek, travellers have the chance to interact closely with local villagers, staying in their

traditional bamboo-thatch homes, observing how they weave, and sharing meals prepared with herbs and spices gathered from the jungle. The villagers also act as guides to lead travellers through the forested hills along the Ho Chi Minh Trail. It's possible to spot elephants (and, rarely, tigers) as well as many species of birds along the way. By employing local villagers wherever possible, the governments involved hope to encourage sustainable use of the NBCA.

Because the tour is partially subsidised by the Swedish government, it is economically priced at US\$50, which includes 4WD transportation, meals, accommodation and local guides. Tours can be booked at the Lao-Paris Restaurant in Savannakhet (see the Savannakhet Places to Eat section earlier in this chapter).

SEPON (XEPON) & THE HO CHI MINH TRAIL

ເຊໂປນແລະເສັ້ນທາງໂຮຈິມິນ

pop 35,600

One of the nearest towns to the Ho Chi Minh Trail is Sepon (often spelt 'Xepon'), about 190km east of Savannakhet via Rte 9. Sepon was destroyed during the war and is now just one of many makeshift wooden towns that mark the long-term legacy of the bombing of eastern Laos during the Indochina War.

The outer edges of the Ho Chi Minh Trail begin 15km to 20km to the east of the town. Although there is plenty of war debris around, much of it is in the bush covered by the undergrowth. Unless you are prepared to go on a hike for some distance from the road (because of the risk of encountering UXO – unexploded ordnance – you'll need a guide), it is hardly worth your while going to Sepon.

A few kilometres east of Sepon stands the small village of **Ban Dong**. Here you'll find the remains of two American-built tanks that were used during Operation Lam Son 719, an ARVN (Army of the Republic of Vietnam) assault on the Ho Chi Minh Trail in February 1971. Despite support from US combat aircraft, the ARVN troops retreated back across the border at Lao Bao after

encountering seasoned North Vietnamese (NVA) troops at Ban Dong. The two tanks are all that is left of what locals say was once a graveyard of destroyed and abandoned tanks and jeeps. By order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the village headman of Ban Dong has been given the task of preventing scrap collectors from dismantling these last reminders of the NVA/PL victory. The tanks are located in a field about 200m south of Rte 9. They can be hard to spot when the grass is tall after the rainy season, so you might want to offer one of the villagers a couple of thousand kip to guide you there – especially as there is the danger of encountering UXO if you stray from the trail.

Thirty-four kilometres further on from Ban Dong is the Vietnamese border itself, where there is a small market offering Vietnamese and Chinese goods.

In **Muang Phin**, 155km east of Savannakhet and 34km west of Sepon, stands an imposing Vietnamese-built monument to Lao-Vietnamese cooperation during the Indochina wars. Done in the 'Heroes of Socialism' style, the monument depicts NVA and PL soldiers waving an AK-47 and Lao flag aloft. You can catch a glimpse of the monument (located on the northern shoulder of Rte 9) when the bus makes its brief stop at Muang Phin.

Places to Stay & Eat

In Sepon, a very rustic government-run **guesthouse** sits on a hill south of the market. Look for the wooden house on piles with blue trim. Dorm beds cost US\$1.25 per person. The toilet and shower are downstairs.

There are a few *fôe stalls* in the market.

Getting There & Away

The bus from Savan to the Vietnamese border departs at 8am and stops in Muang Phin (US\$2.50), Sepon (US\$3.15) and Ban Dong. The fare is US\$3.15 to anywhere between Sepon and the border. It's possible to take the bus from Savan to Ban Dong and then hitch back to Sepon after viewing the tanks.

Savanbanhao Tourism Co at the Savanbanhao Hotel can arrange a 4WD pick-up

and driver for up to five passengers for around US\$170 (to Ban Dong and back).

Champasak Province

The Champasak area has a long history that began with participation in the Funan and Chenla empires between the 1st and 9th centuries AD. Between the 10th and 13th centuries, it became part of the Cambodian Angkor empire. Following the decline of Angkor between the 15th and late 17th centuries, it was enfolded into the Lan Xang kingdom but then broke away to become an independent Lao kingdom at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The short-lived Champasak kingdom had only three monarchs: Soi Sisamut (nephew of Suriya Vongsa, reigned 1713–37), Sainyakuman (1737–91) and Fai Na (1791–1811). During the French era, it was sometimes known as Bassac or Pasak, a shortening of 'Champasak'.

Today Champasak Province (three separate provinces prior to 1975 – Champasak, Sedon and Siuhandon) has a population of around 500,000 that includes lowland Lao (including many Phu Thai), Khmers and a host of small Mon-Khmer groups – Chieng, Inthi, Kaseng, Katang, Kate, Katu, Kien, Lavai, Laven, Nge, Nyaheun, Oung, Salao, Suay, Tahang and Ta-oy (Tahoy) – most of whom live in the Bolaven Plateau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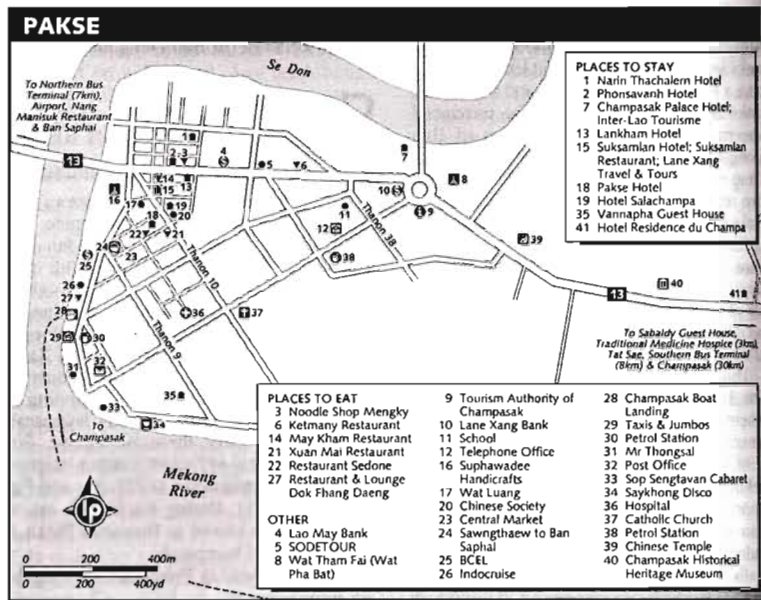
Timber is the province's main source of income, followed by coffee, tea, cardamom, rattan and other agricultural products. The province is also well known for *mat-mii* silks and cottons that are hand-woven with tie-dyed threads.

PAKSE

ປາກເຊ

☛ 031 • pop 64,000

Founded by the French as an administrative outpost in 1905, Pakse is a relatively new town at the confluence of the Mekong River and the Se Don. It is now the capital of Champasak Province but the town is mainly



of interest to the traveller as a point of departure for the Bolaven Plateau, the Khmer ruins at Wat Phu Champasak, Si Phan Don (Four Thousand Islands) or Ubon Ratchathani in Thailand. Trade with Thailand is brisk and the economy is also boosted by the presence of a large pharmaceutical factory 4km south of town.

There are only a few colonial-era buildings left standing, most of Franco-Chinese design. One of the better examples is the elaborately ornamented Chinese Society building on Thanon 10 in the centre of town.

The large and lively central market features a very good selection of produce due to Pakse's proximity to the fertile Bolaven Plateau. The enclosed market building was gutted by fire in 1997 and now stands empty, so the vendors have moved outside to sell clothes, household goods and preserved foods. The building was under reconstruction when we visited and is slated to reopen by the time this book is published.

Short day trips from Pakse can be made to Tat Sae at Km 8, south off Rte 13. Ban Saphai, a weaving village 15km north of town, produces distinctive silk and cotton *phaa salong*, long sarongs for men (see the Around Pakse section later in this chapter).

Many of the town's population are of Chinese or Vietnamese descent – you might want to avoid Pakse during Tet (Chinese and Vietnamese New Year), during which the whole town becomes a fireworks battlefield for three days.

Information

Tourist Offices The Tourism Authority of Champasak Province (☎ 212021) has moved to an office in a building opposite Wat Tham Fai (Wat Pha Bat). It's probably not worth the average traveller's time to come out here though, as we found the staff to be no help whatsoever.

Continued on page 289



BILL WASSMAN

LAO WEAVING

Altogether, Laos is said to have some 16 basic weaving styles across four regions. Southern weavers, who often use foot looms rather than frame looms, practise Laos's most continuous textile traditions in terms of styles and patterns, some of which haven't changed for a century or more. Southern Laos is known for the best silk weaving and for intricate *mat-mii* (ikat or tie-dye) designs that include Khmer-influenced temple and elephant motifs. Synthetic and natural dyes are commonly used. In Sekong and Attapeu, borders often contain cryptic-looking symbols; the recent introduction of simple helicopter and aeroplane motifs suggests the beginnings of a possible post-war cargo cult among the Lao Theung. In these provinces, beadwork is sometimes added to the embroidery. One-piece *phaa nung* (sarongs) are more common than those sewn from separate pieces.

In North-Eastern Laos, the Thai Neua (especially in Hua Phan's Sam Neua), Phuan, Thai Lü, Thai Daeng, Thai Dam and Phu Thai mainly produce weft brocade (*yiap kp*) using raw silk, cotton yarn and natural dyes, sometimes with the addition of *mat-mii* techniques. Large diamond patterns are common. In Central Laos, typical weavings include indigo-dyed cotton *mat-mii* and minimal weft brocade (*jók* and *khi*), along with techniques borrowed from all over the country (brought by migrants to Vientiane – many of whom fled war zones). Gold and silver brocade is typical of traditional Luang Prabang patterns, along with intricate patterns (*lai* and imported Thai Lü designs). Northerners generally use frame looms; the waist, body and *thin sin* (bottom border) of a *phaa nung* are often sewn together from separately woven pieces.



Right: Spinning up a jam storm in Vientiane

ALBERT COOMER